

정답 및 모범답안 [B형]

시험 종류: 제29회 한국어능력시험

영역: 고급 표현(쓰기)

문항번호	정 답 (객관식)	배 점	문항번호	정 답 (객관식)	배 점	
31	①	4	36	③	4	
32	④	4	37	③	4	
33	②	4	38	③	4	
34	②	4	39	②	4	
35	①	4	40	④	4	
답지 빈도	답지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수	2	3	3	2	10

문항번호	모범답안(주관식)	배 점
41	운동 경기 심판은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42	소리가 클지라도 소리가 크더라도	10
43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하는 것이지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하는 것일 뿐	10

<p>44</p>	<p><모범 답안 예시></p> <p>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토론은 문제 해결 과정이자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p> <p>토론을 잘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보아야 하는 문제 상황은 무엇이고, 원인과 현상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해진다. 또한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동시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과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토론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p> <p>이러한 문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할 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상대방의 부족한 논리를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청의 자세 이외에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알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상대방의 논리를 비판하는 전략과 방법을 생각하고 대처해야 설득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경청의 자세가 바탕이 된다면 토론은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p>	<p>30</p>
-----------	--	-----------

※ 채점시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부분점수 인정될 수 있습니다.